

나주, 에너지기업 성장·신규 고용 확대 나선다

맞춤형 일자리 공모 선정...국비 26억 확보 '역대 최대' 내달부터 정착·온오프라인 지원...박람회·워크숍 개최

나주시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돼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26억원을 확보하며 500여명 고용 창출과 에너지 특화 일자리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도비 25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30억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지역 미래 전략산업인 에너지기업의 성장과 신규 고용을 직접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나주전력기술교육원 등에서 양성된 전문 인력이 지역 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인력 양성, 기업 성장, 신규 고용,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시는 3월부터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채용·근로·지역정착 장려금 지원, 대한민국 에너지 잡박람회와 취업 워크숍 개최, 취업 연계 서비스와 멘토 운영, 에너지 맞춤형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재 양성부터 채용, 근무, 지역 정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전을 중심으로 조성된 에너지밸리와 인공태양 연구시설, 강소연구특구 등 주요 인프라와의 연계해 강화해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고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일자리 정책으로 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겠다"며 "청년과 전문 인력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주를 에너지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강진청자축제 개막식에 맞춰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 체험단이 강진청자축제장 일원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진군

'도자문화 산실' 강진청자축제, 외국인 관광객도 반했다

유학생·주민 참여 확대...글로벌축제 기반 마련

강진청자축제가 지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성과가 내고 있다. 26일 강진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강진청자축제가 외국인 방문 프로그램을 GGN(글로벌관광주방송)과 협업을 추진, 광주·전남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주민 등 40여명이 축제 현장에 찾았다.

청자 전시를 둘러보고, 축제 현장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 부스 가운데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강진의 전통 도자 문화와 지역 축제 콘텐츠를 체험했다. 이들은 청자 압제퍼즐 만들기, 화목소원 태우기, 청자 키링 만들기, 청자 손수건 만들기, 청자 물레 성형 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축제 개막식 관람과 함께 강진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외국인 방문

이 단순한 관람을 넘어, 체험 중심 콘텐츠를 통해 강진청자축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경쟁력을 갖춘 문화축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은 외국인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주민, 해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제54회 강진청자축제는 고려청자의 분산인 강진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매년 개최되는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청자 전시와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돼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진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금액 대폭 확대...1인당 최대 3만원

진도군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단체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일반단체 등이다. 여행사는 외국인인 포함한 10명 이상의 단체관광객, 학교 등은 20명 이상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해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이용, 관광지 방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진도군이 장려금(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섬 지역인 조도, 관매도에 방문하면 조도는 2000원, 관매도는 5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행사뿐만 아니라 일반단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요건을 완화해 많은 여행사와 단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추후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군수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관광지와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를 함께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한 지원 시책으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라며 "관광객들이 진도에 체류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머무르는 관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담양,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진정 니들이·국적 취득 지원...정서 안정·정착 도모

담양군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정착과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설계 프로그램과 교육활동비 지원도 확대한다. 진로 상담과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미래 설계를 돕고, 초·중·고 학생에게는 학습에 필요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해 학업 지속과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이주여성 대상 우리 문화 체험 활동도 운영한다. 문화 체험과 소통 프로그램, 정서

치유 활동 등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마음의 휴식과 소통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담양군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담양군가족센터는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사례관리, 통·번역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종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함께 다문화이해교실과 온가족 어울림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담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담양군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담양군

영광, 묘량농공단지 분양 본격화

합리적 분양가·안정적인 인프라 등 장점

영광군이 수도권 제조기업의 지방 이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묘량농공단지 분양 홍보와 기업 유치 강화에 나섰다. 26일 군에 따르면 수도권 내 산업용지 가격 상승과 각종 규제 강화, 인건비·운영비 증가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합리적인 분양가와 안정적인 산업 인프라를 갖춘 묘량농공단지지를 대안 입지로 제시하고 있다. 묘량농공단지는 묘량면 신천리, 영양리 일원에 조성된 농공단지로 식료품·금속·전기 등 제조업 중심의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산업 기반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기업이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할 수 있다. 특히 조성원가는 ㎡당 16만5000원(평당 54만5000원)으로, 수도권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산업용지 가격 경쟁력이 장점이다. 군 관계자는 "묘량농공단지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동시에 고려하는 수도권 제조기업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며 "기업이 빠르게 이전하고 조기 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화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제공=화순군

화순,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소통·주민 체험형 정책 호평

화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등 11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61개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했다. 이중 화순은 전국 82개 군 단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새 정부의 혁신 방향에 발맞춰 소통과 협력 기반 행정,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주민 체감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하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여기에 △24시간 응급실 확대 운영 등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 '응급안전망' 구축 △지류 기반 이음권 방식 개선 '맘 편한 100원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IoT 활용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도 서비스 제공 '스마트 원격 검침' △고독사 고위험군 돌봄 사각지대 예방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설치 사업 등이 주요 우수 사례로 꼽혔다. 구북구 화순군은 "이번 성과는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모은 공적자가 혁신 의지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더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해남 '입학축하금' 1인 30만원 상품권 지급

해남교육재단이 지역 청소년에 대한 교육 복지 강화와 학업 지원을 위해 초·중·고교에 들어가는 입학생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1인당 30만원씩 입학 축하금이 지원되며, 3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급된다. 전남 22개 시·군 중 9곳이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해남군은

초·중·고 모든 입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금액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입학생이며, 등록지가 해남군일 경우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학생을 대신해 친권자나 후견인,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하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